

Korean Music Therapy Students' Growth in Supervision: A Modified Grounded Theory

Yun, Jur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Korean music therapy students experience growth under clinical supervision. The investigator conducted in-depth qualitative interviews with 9 students from 3 different universities in Seoul who had at least three semesters of clinical supervision. Data was analyzed using a 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 to construct the growth experience of music therapy supervisees. Results suggest that growth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both personal and professional domains and includes four types of experiences: growth hindering, fostering, mediating, and revealing. In the personal domain, hindering factors are defensiveness, narcissistic trauma, avoidance and anxiety whereas growth fostering and mediating factors include reflection on self, musical self, unconscious drives and conflicting issues as well as self-driven problem solving skills. As a result, growth in the personal domain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self-acceptance and self-awareness. Growth in the professional domain is hindered by having trust issues, performance anxiety, identity crisis, and being hypersensitive to the judgment of others. On the other hand, growth is fostered and mediated by opening the self and interacting more with others, building trusting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supervisors, and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with music, which leads to improved attitude, increased motivation, and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training.

Keywords : Music therapy, Supervision, Supervisee, Growth, Modified Grounded Theory

* Director, Gaon Music Therapy Center

음악치료 전공생이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성장에 대한 연구

윤주리*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공생들이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성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3개 대학의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 중 슈퍼비전을 3학기 이상 이수한 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변형된(modified) 근거이론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슈퍼비전 경험에서 음악치료 전공생은 개인으로서의 성장과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성장의 요소로써, 자기방어, 자기애적 상처, 자기회피 및 불안 등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삶, 음악적 자아, 자신의 욕구와 개인 내적 문제를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성장의 지지/매개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남을 통해 슈퍼바이저는 개인으로서 성장을 하였다. 전문성의 성장 요소로써, 타인의식, 신뢰의 어려움, 수행불안 및 정체성의 혼란은 전문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슈퍼바이저 및 동료에 대한 신뢰와 동맹을 형성하며 관계 및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동기강화로 이어지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났다. 그 결과로 슈퍼바이저는 음악치료의 전문성을 형성, 음악의 치료적 힘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전문가로 성장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음악치료,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성장, 변형된(modified) 근거이론

* 가온음악치료센터 음악치료사 (juriyun@naver.com)

I. 서 론

슈퍼비전은 음악치료 전공생의 학문적 발전과 임상기술 및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음악치료 교육과정의 필수 항목이며, 전문성 확보의 핵심 역할(McClain, 2001)을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외에서는 이미 슈퍼비전의 학문적, 임상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으며(Forinash, 2001), 국내에서도 심리치료 및 상담 분야에서 김계현(1992)을 시작으로 슈퍼비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두경희, 김계현, 김동민, 2008).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음악치료 분야에서도 슈퍼비전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다른 영역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김동민, 2009). 국내의 음악치료 슈퍼비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악치료 실습교육에서의 슈퍼비전 만족도 조사(박혜미, 2011), 슈퍼비전의 형태에 따른 만족도 조사(곽은미, 장빛나, 유가을, 2012), 슈퍼비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특성 요인들간의 관계를 규명(김동민, 2012)하고,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정서적 변인들을 밝힘으로써(김동민, 2009) 슈퍼비전의 질적 향상과 효과상승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슈퍼비전은 교육적, 치료적, 평가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이고(Forinash, 2001), 목적과 방법에 따라 슈퍼비전의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므로(Forinash, 2001), 슈퍼비전에 관한 연구는 다층적이며 종합적이어야 한다(강지연, 유성경, 2006; 김동민, 2012). 그러나 현재까지 슈퍼비전의 과정과 슈퍼바이저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슈퍼비전을 통해서 학생의 발전과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한 갈등과 어려움은 어떻게 대처되는지, 슈퍼비전 안에서의 역동, 그리고 상호작용의 과정과 내용 등은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슈퍼비전은 음악치료 전공생이 임상에서 필요한 치료기술의 습득 및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배우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치료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Dileo, 2001).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교수학적 접근, 모델링, 관찰, 코칭을 경험하고, 자신이 습득한 기술과 행동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McClain, 2001). 슈퍼비전은 지적 자원의 활용을 돕고, 새로운 기술 및 기법을 배워 통합하도록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정신을 갖게 하며, 실제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Borcson, 2012). 또한 슈퍼비전은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개인적 성장도 목표로 하는 치료적인 특성을 지닌 독특한 관계로 정의되기도 한다(Forinash, 2001).

음악치료사로의 역량을 4가지로 구분하면 이론, 임상, 음악 및 개인적 영역으로 나뉜다(Forinash, 2001). 이는 음악치료가 음악과 치료가 결합된 학문의 한 형태로 음악치료사는 치료사와 음악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을 의미하며, 치료사의 전문성은 이론적이고 임상적인 역량을 넘어 치료의 도구이자 매개체인 음악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개인적 능력, 치료사의 내적 성숙과 통찰력을 포함한다(Chong, 2007).

수퍼비전은 여러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수퍼바이저가 관찰을 통해 피드백을 주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Forinash, 2001). 이는 수퍼바이저가 지식과 함께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을 통해 수퍼바이저가 임상 능력의 향상과 배움을 장려 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수퍼비전의 방법은 자기분석 방법(Forinash, 2001)이다. 이는 치료 세션이 끝난 후 치료세션의 관찰과 치료문서 작성을 통해 치료과정을 분석해 보고 개인적 성찰 작업을 통해 치료사로서의 모습을 평가함으로써 발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퍼바이저의 분석과 평가는 평가불안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논의 된 바 있다(Turry, 2001).

다음으로 즉각적 피드백을 주는 방식 대 비디오 녹화 세션을 보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Andersen, 1982)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현장 피드백 방식은 세션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역동, 분위기 및 진행속도 등 세션 비디오를 통해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수퍼바이저가 직접 참여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경험이 부족한 전공생들이 당황하거나, 계획한 세션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비디오 녹화 세션의 수퍼비전은 치료 기술, 치료적 개입의 효과와 적절성 및 내담자의 반응을 충분한 시간에 걸쳐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Borcson, 2012).

수퍼비전이 개인과 집단의 서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 질 때 형태에 따른 수퍼비전의 질적 내용과 만족도가 논의된 바 있다(곽은미 외, 2012; Ray & Altekruze, 2000). 개인 수퍼비전에서는 개별 사례와 관련된 치료사의 행동 및 임상적 기술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치료사 개인의 임상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수퍼비전을 제공받을 수 있다(최한나, 2005; Stoltenberg, Mcneil, & Crethar, 1994). 집단 수퍼비전에서는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동료로 인해 수퍼바이저는 지지적인 환경과 정서적 소외감의 감소를 경험하고(Ray & Altekruze, 2000), 수퍼바이저로부터 받는 일방적인 피드백이 아닌 동료와 상호간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기회가 제공됨이 부각되었다(Newgent, Davis & Farley, 2005).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경험하며,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쳐서 전문가로서 성장함이 논의된바 있다(김계현, 1992; Stoltenberg et al., 1994). 따라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 모두 교육적 지침을 얻기 위한 필수 지식으로 수퍼바이저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성장 수준을 고려한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김계현, 1992; 이수림, 조성호, 2009; Heppner & Roehlke, 1984; Kindsvatter, Granello, & Duba, 2008).

국내의 치료사 발달 연구로는 발달적 관점을 적용한 소수연구들이 있는데, 김계현(1992)은 기존의 상담자 교육 및 발달단계에 관한 이론들을 도출한 후 실습 준비기, 실습 수련기, 자기 수련기로 발달 단계를 설명하였다. 그 외 수퍼바이저 관점에서 이들의 경험을 규명한 연구들(김진숙, 2001; 이미선, 권경인, 2009; 허재경, 김지현, 2009)이 근래까지 수퍼바이저의 발달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공생들이 슈퍼비전 상황에서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탐색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장의 요소와 속성을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실제 슈퍼비전 경험의 실체와 의미를 슈퍼바이저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경험의 요소들을 의미단위로 분석하기에 적당한 근거이론 방식을 채택하였다. 음악치료 전공생의 최소 3학기 이상 이수하는 슈퍼비전 경험 속에 나타난 성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치료 교육 과정의 슈퍼비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성장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슈퍼비전에서의 음악치료 전공생의 성장 경험, 그리고 그 요소와 속성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슈퍼비전을 통한 음악치료 전공생의 성장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는 현재 음악치료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고, 슈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3학기 이상인 자로 대상자를 제한함으로써 참여자의 충분한 경험의 정도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험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표본추출 과정에서 참여자의 소속 학교, 슈퍼비전 경험학기의 수 등을 고려하여 9명의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이들의 슈퍼비전 경험 기간은 1학기의 관찰세션 또는 모의세션을 포함하여 3학기 이상이며, 각 학기마다 서로 다른 슈퍼바이저를 통해 슈퍼비전을 받았다. 이들이 경험한 슈퍼비전의 형태는 평균 49회기의 비디오 분석 중심의 집단 슈퍼비전과 평균 7회기의 현장 지도 중심의 개인 슈퍼비전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참여자 9명은 모두 여성이며, 나이는 27세~41세로 평균나이는 30세 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구분	연구참여자	연령	슈퍼비전 경험	소속학교
01	A	27	4학기	가
02	B	35	3학기	나
03	C	27	4학기	나
04	D	30	4학기	다
05	E	29	4학기	다
06	F	28	3학기	다
07	G	29	4학기	가
08	H	28	3학기	나
09	I	40	4학기	가

2. 연구 시행

연구자는 2012년 10월20일부터 30일까지 참여자를 직접 만나 심층면담을 하였으며, 각 면담은 40분~6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연구자는 면담 후에 면담과정에서의 인상적인 내용, 참여자로부터 받은 개인적 느낌, 다음 면담에서 질문할 내용들을 메모했다. 녹음된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축어록으로 작성했고, 녹음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며 정확도를 확인했다. 축어록 작성 후에 참여자는 작성된 축어록을 읽을 기회를 갖고, 면담에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2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2〉 인터뷰 질문지 구성

질문 항목	질문 내용
슈퍼비전의 주요 경험	1. 슈퍼비전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과 경험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2. 슈퍼비전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상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본인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슈퍼비전 경험에서 성장의 인식과 의미	1. 슈퍼비전을 통해 어떻게 성장을 경험하십니까? 2. 슈퍼비전을 통한 성장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3. 자료 분석 방법

연구자료는 변형된(modified) 근거이론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이는 근거이론 방법의 하나로써, 수집된 원 자료를 의미단위로 분류 및 분석하는 코딩과정을 통해 형성된 범주의 속성을 규명하고 기술하는 방법이다(Strauss & Corbin, 2001).

연구자료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는 참여자의 자료로부터 본 연구의 주제인 성장에 대한 현상에 관련한 의미단위를 지속적인 비교를 거치면서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후 개방 코딩을 통해 하위범주를 형성하고 각 범주의 속성을 분석하였다. 규명된 속성은 Edwards와 Kennelly(2004)의 연구와 같이 자료를 근거로 하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그 범위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범위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내용, 양상,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수준을 차원으로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 9명에게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개념과 범주가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이가능성의 확인을 위해 참여하지 않은 음악치료 석사과정의 전공생 3명에게 본 연구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그들에게 적용 가능한 결과인지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3인의 박사과정생과 1인의 음악치료학과의 교수에게 연구과정 전반과 연구 결과에 대해 지문을 구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을 배제하는 노력을 위해 연구자는 어떤 이론적 지향 없이 근거이론 방법론의 연구절차 및 분석과정에 충실하여 음악치료 전공생의 슈퍼비전을 통해 경험하는 성장의 현상을 사실대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자료 코딩

연구 참여자 9명의 면접 자료를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하기를 통해 개방 코딩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두 가지 영역에 총 86개의 개념, 29개의 하위 범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3>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성장에 대한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영역
비디오를 보여주지 않거나, 세션에 대해 지나친 부연설명을 제공함			
수퍼바이저가 비수용적 태도를 보이면 개방하지 못하고 감추며 배우지 못함	자기방어		
수퍼바이저와의 관계가 어려워 의문점이 있어도 질문이나 요구하지 못하고 침묵함			
수퍼바이저가 감정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로 지적시 상처받음	자기에적상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회피하고 싶어짐	자기회피	저해 요인	개인성
세션을 돌아보는 것이 불편하여 일지작성을 미루게됨			
지금 잘 하고 있는것일까 계속 자문함 많은 과제와 어려운 기술의 요구는 학습 의욕을 저하시킴	수행불안		
세션 중에도 슈퍼비전에서 어떤 지적을 받게될까 걱정됨			
슈퍼비전에서의 평가가 불편하고 신경쓰임	평가불안		
실수한 세션 이후 수업에 어떻게 가야하나 걱정됨			
세션 비디오를 공개할 때 창피하고 위축됨			

〈표 3〉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영역
더 개방적이고 수용하는 태도로 임하려고 함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더 많이 배움	태도		
나의 강점을 찾아 스스로에게 격려함 나의 성향과 욕구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찾고자 노력함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함 내가 수용 할 수 있는 피드백의 범위를 생각하고 적용해 봄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고자 치료나 상담을 받음	문제해결력	지지 요인	
나를 힘들게 하는 성향이 무엇일까 생각해 봄 나와 맺은 관계들에 대해 돌아보게 됨 수퍼비전에서 개인의 이슈나 필요를 다룸 수퍼비전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문제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생각함 음악안에 투사된 나를 보고자 함 피드백을 통해 받은 나의 단점, 부족한 점을 되돌아 봄	자기탐색	매개 요인	개인성
나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편해짐 나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수용함	자기수용		
개인적인 시각과 관점이 변화함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됨 내가 가치있게 느껴짐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왔다고 느낌 한 사람으로서 성장했다고 느낌 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짐	자기인식의 변화	결과	
수퍼바이저마다 다른 피드백을 줄때 혼란스러움 추상적이고 모호한 피드백을 받으면 혼돈스럽고 배우는 것이 없다고 느껴짐 집단 수퍼비전중 동료간의 피드백은 간혹 수용하기 어려움	신뢰의 어려움		
비디오 분석을 받을 때 수퍼바이저의 얼굴표정이나 말투에 매우 민감한 감정반응이 일어남 집단 수퍼비전에서 평가를 받으면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되고 마음이 불편함	타인의식	지해 요인	전문성
세션에 대한 후회가 오래 마음에 남아 불편한 감정을 경험함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불확실 함 새로운 실습환경에 대한 두려움 연주/ 모의세션 시연 시 불안하고 위축됨	수행불안		
음악치료가 나에게 맞는 것일까 혼돈스러움	정체성		

〈표 3〉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영역
동료들과 교류하며 힘을 얻음 수퍼비전을 같이 받는 그룹원들과 친밀감과 동질감을 형성함	동료지지 체계형성		
수퍼바이저와의 관계가 친밀해짐 집단 수퍼비전에서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동료를 보고 동질감을 느낌 집단 수퍼비전에서 동료의 의견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신뢰관계	지지 요인	
과제, 수업준비를 열심히 할 때 더 많이 배움 동료의 긍정적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음	동기강화		
다른 시각과 피드백이 있을 수 있음을 수용함 질문이나 요구가 있을 때 문서 또는 면담을 통해 질문하고 도움을 얻음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수퍼바이저의 지도가 보다 신뢰있게 느껴짐 수퍼바이저의 공감, 수용, 존중으로 치료받은 것 같은 경험을함	동맹관계		
수퍼바이저의 시연이나 모델링을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음 내담자의 변화가 인식되어 전문가가 되고 싶어짐 수퍼비전의 필요성을 인식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음	동기강화	매개 요인	전문성
수퍼바이저의 격려를 통해 수용 받는 느낌이 들 때 더 열심히 하게 됨 나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신뢰가 느껴질 때 더 노력하게 됨 수퍼바이저의 수용적 태도로 인해 자신의 단점을 더 개방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게 됨	타인의 수용적 태도		
모델링과 시연, 모의세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 수퍼바이저에게 치료사로서의 자세를 배움	경험적 학습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세션 기술을 배워나감 목소리 사용이나 연주기술 등 개인의 음악적 역량을 고려하여 지도를 받음 문서작성에 대한 피드백과 수정작업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이 길러짐	교수법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세션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보다 이해가 됨		매개 요인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학습함 문서에 대한 피드백과 세션 진행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받을 때 보다 도움이 됨 비디오 분석을 통해 구체적 피드백을 받으면 더 도움이 됨	체계적 학습		

〈표 3〉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영역
수퍼비전에서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됨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내담자 중심적 태도로 변함	치료적 관계		
타인에 대한 민감함이 생김			
사람마다 성향. 시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용			
수퍼바이저의 성향을 이해하고 피드백을 수용하고자 함	타인수용		
철학적 배경이 다른 수퍼바이저의 장.단점을 알게 됨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함			
나와 음악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	음악적 자기의 인식	결과	전문성
음악의 치료적 힘을 더 깊이 알게 됨	음악의 힘 인식		
내담자를 만날 때 불안하지 않고 편안함			
내담자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치료사로서의 성장을 느낌			
독립적으로 세션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태도가 됨	자신감		
세션을 계획하고 음악을 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확신이 생김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을 배우고 깨달음			
수퍼바이저들을 통해 나의 철학적 기반을 형성	정체성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듦			

2. 자료 분석

코딩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범주가 갖고 있는 속성의 차원을 규명하는 방법을 통해 범주들 간의 연합관계를 재조합 하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규명된 속성의 차원은 각 범주 내 속성 별로 성장경험의 차원과 범위를 나타낸다.

〈표 4〉 범주의 속성과 차원

영역	속성	차원
개인성	수행불안	낮음 <---> 높음
	평가불안	낮음 <---> 높음
	자기애적 상처	적음 <---> 많음
	자기방어	약함 <---> 강함
	의욕저하	낮음 <---> 높음
	태도	폐쇄적 <---> 개방적
		의존적 <---> 독립적
	자기탐색	소극적 <---> 적극적
	문제해결력	소극적 <---> 적극적
	자기인식	적음 <---> 많음
	자기수용	적음 <---> 많음
	음악적 자기(Self)의 인식	적음 <---> 많음
	전문성	타인의식
동료지지		적음 <---> 많음
동기수준		낮음 <---> 높음
지지적관계		약함 <---> 강함
교수법		일괄적 <---> 개인적
		지시적 <---> 경험적
		비체계적 <---> 체계적
타인수용		소극적 <---> 적극적
음악의 힘 인식		낮음 <---> 높음
내담자 관계 인식		낮음 <---> 높음
치료 관계의 변화	적음 <---> 많음	
자신감(자기역량)	적음 <---> 많음	
정체성	혼돈 <---> 형성	

3. 내용분석

하위범주를 종합하여 도출된 속성들을 보면 Forinash(2001)가 언급한 바와 같이 수퍼바이저의 성장경험 또한 개인적인 영역과 전문성과 관련된 영역의 성장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개인적 성장 및 전문가적 성장으로 나누어 각 범주별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으로서의 성장

(1) 저해요인

연구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거나,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에 자기에 적 상처를 경험하였다.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슈퍼바이저의 태도나 어투, 표정 등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하여 저항 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세션 비디오를 볼 때 선생님 얼굴 표정이 정말 안 좋아지고, 계속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불안하고 또 무슨 지적을 받을까 걱정이 되고, 후배까지 있는데서 지적을 받으면 내가 자질이 없나, 발전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고. (참여자 D)

세션에서 정말 제가 음악을 이상하게 한날에는 비디오 보기도 싫고 일지 작성하기도 싫어서 계속 미루고 회피하게 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게 또 힘들고. (참여자 C)

(2) 지지/매개요인

음악치료에서는 음악을 치료의 주도구로 사용하므로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노래를 하거나,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데 이를 치료적으로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며 음악 경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마주하게 되고, 개인의 삶, 음악적 자아, 자신의 욕구와 개인 내적 문제를 직면하고 지속적으로 돌아보게 됨을 경험했다. 개인적 이슈를 알아가며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 스스로 격려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슈를 다루는 것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내가 음악치료를 왜 하고 싶었지? 음악의 힘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근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평가받는 거에 너무 신경 쓰고 시간에 맨날 쫓기고 사실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하니까. 세션 생각하면 부담되고.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음악치료를 했고, 음악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세션에 갈 때 그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의미 있게 내담자를 만나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자 그런 생각. (참여자 G)

계속해서 같은 지적을 받고 마음이 힘들어 지고 의욕도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고 음악치료도 받고 상담을 받아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해 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참여자 B)

(3) 성장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 음악을 다루고 표현하고자 할 때, 세션 비디오를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을 때에 타인을 민감하게 의식하거나 평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보다는 보다 자유롭게 자신을 개방하여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음악적 자원과 개성을 더 자유롭게 임상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피드백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함으로써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학습, 관계, 유연한 사고와 태도에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하였다.

선생님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같이 해보자고 하시는데, 같이 연주를 하니깐 너무 신기했죠. 아 음악적으로 공부할 게 많구나 생각이 들면서 더 뽐어올랐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야 하나. 새롭게 음악과 만나는 경험을 한거죠. (참여자 C)

이제는 나의 강점, 약점 있는 그래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내 개인적인 시각들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자 F)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게 있다면 제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살면서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순간이 좋고 그것이 음악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참여자 I)

2) 전문가로서의 성장

(1) 저해요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자원과 개성을 습득한 이론에 적용해 보고 싶은 기대감과 함께 아직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적 기술의 습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학생치료사로서 치료 세션을 이끄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는 등 수행불안을 경험하였다. 또한 동료 관계와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을 신뢰하지 못해 혼란스럽거나, 자신이 진행한 세션에 대한 민감한 감정 반응을 경험하였다.

관찰할 때는 나는 어떤 내담자를 만나게 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솔직히 음악치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면서 세션을 나가니까 너무 떨리고, 한 학기 내내 치료 목적 잡는 것도 너무 어렵고,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 (참여자 E)

제가 목소리도 너무 작고 노래할 때 너무 떨려서 정말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노래 해보라고 그러면 너무 당황해서 덜덜 떨고, 다른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너무 신경 쓰였지요. (참여자 I)

(2) 지지/매개요인

집단 슈퍼비전에서 참여자들은 동료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점차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동료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동맹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동료의 긍정적 모습을 통해 자신도 잘 하고 싶은 동기가 강화되고, 슈퍼바이저의 태도가 수용적이고 슈퍼바이저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공감, 격려 및 지지를 하였을 때 슈퍼바이저는 치료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더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하였다. 점차적으로 학문적 이론과 실제 및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배워나감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현장 경험이 많은 슈퍼바이저의 전문성을 보면서 자신도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싶은 강한 성장 동기를 경험하였다.

음악치료에 관련한 것들.. 제가 가족한테도 말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데.. 선생님은 내가 왜 힘든지 다 아시고 그런 것에 대해 언급을 해주시면 힘이 됐어요, 그런 거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A)

수퍼비전을 같이 하면 친밀해 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은 받아들여서 배우고, 어차피 새로운 분야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새로 개척하는 거라면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E)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선생님이 이것을 찾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세션 계획하고 수정하는데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려는 저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D)

처음에는 지적을 받으면 너무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먼저 올라왔는데 슈퍼비전을 계속 받으면서는 아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문제구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참여자 F)

(3) 성장결과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의 경험이 쌓이면서 세션을 계획하고 음악을 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내담자가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치료사로서의 자신감이 향상되면서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신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슈퍼비전 안에서는 더 편안하게 예비 치료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개방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경험하며, 주어지는 피드백을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와 동

료와의 관계를 자신을 충분히 개방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로 신뢰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며, 참여자는 음악치료의 전문성과 음악의 치료적 힘을 경험하고 깨달아 나아가면서 전문가로서 성장해 가는 경험을 하였다.

실습에 나가서 세션을 하게 되면 이제 음악치료의 방법, 음악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 내담자와 치료사 간에 음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많이 배웠구나. 지난 시간들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참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얼마나 헤매고 있었겠어요. 감사한 거죠. (참여자 A)

세션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문서에 더 신경 쓰고,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되게. 제 장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부분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참여자 E)

이젠 좀 덜 긴장하고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나 그런게 더 성숙되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좀 더 독립적이라고 느껴지고, 한 가지 제일 큰거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거, 음악에 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생각이나 확신을 많아지고, 관계가 많이 바뀐 게 사실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내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가정에서의 관계에서도. (참여자 E)

이제 대상 생각하면 계획 쓰는 거 문제없고, 예전에 남한테, 선생님한테 의존했다면 이젠 내가 할 수 있겠다.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성장했다. 생각이 드는거죠. 나의 부족한 것이나 실수도 편안하게 오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거죠. (참여자 F)

IV. 논 의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공생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성장의 요소와 속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에서 개인으로서의 성장과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 통합모델에서 제안한바와 같이 슈퍼바이저의 자각수준, 동기, 슈퍼바이저에 대한 의존성의 속성 안에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Stoltenberg & Delworth, 1987).

본 연구에서 슈퍼바이저는 자기탐색, 자기인식의 변화, 태도의 수정, 자기 수용,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과정들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슈퍼비전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큼을 볼 수 있었는데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

분은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있어 슈퍼비전은 지식과 기술의 학습을 통한 성장 뿐 아니라 동료와 슈퍼바이저와 느끼는 동맹, 신뢰, 관계변화와 같은 관계성장 경험이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큰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음악을 치료 매체로 사용하는 음악치료의 고유성을 고려할 때 슈퍼바이저가 음악적 자기(Self)를 새롭게 인식하고, 음악적 역량을 확신하며 적용해 가는 과정은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슈퍼바이저가 그들의 관점에서 음악치료 실습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 내용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바이저가 아직 음악치료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 치료사로서 실습 세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함과 동시에 자신의 음악적 자원과 개성에 대한 탐색을 함께 경험한다. 이는 Ronnestad와 Skovholt (2003)의 발달단계에서 초기 심리치료 및 상담 대학원 학생이 갖는 수련생으로서의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설명해 주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슈퍼바이저의 불안은 개인 슈퍼비전에서 보다 집단 슈퍼비전에서 더욱 강하게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민, 2009; 방기연, 2006).

둘째, 슈퍼바이저들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 의욕저하 및 자기에적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삶, 자신의 욕구와 개인 내적 문제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는 경험은 국내 상담분야의 슈퍼비전에서는 자기인식을 통한 수련생의 성장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결과(방기연, 2006)와는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음악치료 전공생들이 음악치료사가 되는 훈련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과 문제를 직면할 뿐만 아니라 음악을 매개체로 자신을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함을 볼 수 있었다. 이때 사용하는 목소리, 연주 기술 등은 한 개인의 자아를 반영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 있는 도구이므로 매우 직접적이며 강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는 치료사, 내담자, 그리고 음악이 필연적으로 다루어지는 관계이므로 슈퍼비전에서도 이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자들은 슈퍼비전 상황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적절하게 다루고, 대처방안을 찾으며 문제를 해결해갔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동료 슈퍼바이저와의 동질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을 경험하고, 슈퍼바이저로부터 예비 치료사로서의 존중과 이해, 지지와 격려를 경험함으로써 슈퍼비전 관계의 전환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려는 인식의 전환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슈퍼바이저를 통해 수용, 격려, 지지를 경험하는 과정이 이후 성숙한 치료사가 되기 위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내담자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기반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슈퍼바이저들은 점차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동기수준이 높아지면서, 타인을 의식하거나 평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보다는 자유롭게 자신을 개방하여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자신

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선택과 판단, 의지를 키워나가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후 음악치료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신뢰하고, 음악의 치료적 힘을 신뢰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자신의 음악적 자원과 개성을 더 자유롭게 임상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학습적 측면, 관계성, 자기인식에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하였다. 이는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이 증가하고 사고와 행동의 유연성이 발달함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 효능감이 유지되고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허재경과 김지현(2009)의 선행연구와도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슈퍼바이저는 음악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기반과 임상적 기술을 다각적으로 학습하고, 그 역량이 향상되어 전문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의 전문성과 음악의 치료적 힘을 경험하고 깨달아 나아가면서 전문가로서 성장해 가는 경험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내적, 관계적으로 성숙한 사고와 시각을 가지며 한 개인으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단계는 김계현(1992)의 자기 수련기와의 맥락을 같이하며, 자신의 가치, 관심과 성격이 조화를 이루어 전문성을 형성하는 숙련된 치료사의 단계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Ronnestad & Skovholt, 2003).

이와 같이 음악치료 전공생이 슈퍼비전을 통해 경험하는 성장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적 이슈를 다루어 가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부분이다. 슈퍼비전이라는 특수한 환경 안에서 유발되는 정서적 긴장과 다양한 자극이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도전해 가는 과정을 더 촉발하고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슈퍼비전에서의 신뢰적인 관계의 경험이 개인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획득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공생이 전문가로 발달해 가는 경험과정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로써 참여자의 성장경험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의 음악치료 슈퍼비전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슈퍼비전 경험을 슈퍼바이저의 관점에서 조명하며, 음악치료 슈퍼비전의 특성과 그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향후 슈퍼바이저 훈련내용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음악치료 대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서울의 3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음악치료 전공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국내의 모든 음악치료 교육과정의 슈퍼비전 경험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다양한 대학원 교육과정의 임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수퍼비전 경험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공생들이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성장 과정에서 수퍼비전의 다양한 형태와 교수법의 다양성 및 특정한 시기에 따른 경험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수퍼바이저의 경험을 살펴보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과 개인 수퍼비전의 형태와 교수법, 각 학기에 따른 수퍼바이저의 성장 경험을 밝힘으로써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성장 과정 및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퍼바이저의 관점에서 수퍼비전을 통한 성장 경험을 규명하였기 때문에 수퍼바이저 관점에서의 수퍼바이저의 성장 경험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는(Heppner & Roehlke, 1984) 결과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의 시각에서 수퍼바이지의 경험을 탐색해 봄으로써, 수퍼비전에 관한 다각적인 관점의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지연, 유성경 (2006). 슈퍼바이지 수치심과 슈퍼비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작업동맹 및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4), 1005-1021.
- 곽은미, 장빛나, 유가을 (2012). 음악치료 슈퍼비전 형태에 따른 슈퍼비전 만족도 조사. **음악치료교육연구**, 9(1), 21-36.
-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수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10.
- 김동민 (2009). 음악치료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수치심과 평가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60-85.
- 김동민 (2012). 음악치료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애착유형, 자기효능감, 정서적 유대, 수치심, 평가불안 간의 관계.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2), 1-27.
- 김진숙 (2001). 상담자 발달모형과 청소년상담자발달연구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9-37.
- 두경희, 김계현, 김동민 (2008). 슈퍼비전 성과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 연구**, 9(3), 1007-1021.
- 박혜미 (2011). 음악치료 전공생의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분석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8(1), 61-81.
- 방기연 (2006). 상담심리사의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8(2), 233-254.
- 이미선, 권경인 (2009). 집단상담자 경력에 따른 집단상담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10(2), 911-931.
- 이수림, 조성호 (2009). 상담자발달과 지혜에 관한 연구: 상담자발달수준에 따른 상담자의 지혜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69-91.
- 최한나 (2005). 상담자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6(3), 713-727.
- 허재경, 김지현 (2009). 성찰 중심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자 발달의 변화과정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10(2), 719-740.
- Andersen, J. F. (1982). The effect of feedback versus no feedback on music therapy competencies. *Journal of Music Therapy*, 19(3), 130-140.
- Borczon, R. M. (2012). **음악치료 임상지침서**. (이진형 역). 경기: 교육과 치료. (원저 2004 출판).
- Chong, H. J. (2007). Interpersonal competency in music therapy: Challenges for education and clinical training. *Korea Journal of Music Therapy Education*, 4(2), 106-114.
- Dileo, C. (2001). Ethical issues in supervision. In M. Forinash (Ed.), *Music therapy*

- supervision* (pp. 19-38).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Edwards, J., & Kennelly, J. (2004). Music therapy in paediatric rehabilitation.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3(2), 112-126.
- Forinash, M. (2001). *Music therapy supervision*.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Heppner, P. P., & Roehlke, H. J. (1984). Differences among supervisees at different level of training: Implication for a development model of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1), 76-90.
- Kindsvatter, A., Granello, D. H., & Duba, J. (2008). Cognitive techniques as a means for facilitating supervisee development. *Counseling Education & Supervision*, 47(3), 179-192.
- McClain, F. J. (2001). Music therapy supervision: A review of literature. In M. Forinash(Ed.), *Music therapy supervision*(pp. 9-17).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Newgent, R. A., Davis, H. J., & Farley, R. C. (2005). Perceptions of individual, triadic, and group models of supervision: A pilot study. *Clinical Supervision*, 23(2), 65-79.
- Ray, D., & Altekruise, M. (2000). Effectiveness of group supervision versus combined group and individual supervis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1), 19-30.
- Ronnestad, M. H., & Skovholt, T. M. (2003).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5-44.
- Stoltenberg, C., Mcneil, B., & Crethar, H. (1994). Change in supervision as counselors and therapists gain experience: A re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5(4), 412-449.
-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auss, A., & Corbin, J.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원저 1998 출판).
- Turry, A. (2001). Supervision in the Nordoff-Robbins music therapy training program. In Forinash, (Ed.), *Music therapy supervision*, 351-378,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게재신청일: 2013. 10. 10.
- 수정투고일: 2013. 11. 15.
- 게재확정일: 2013. 11. 23.